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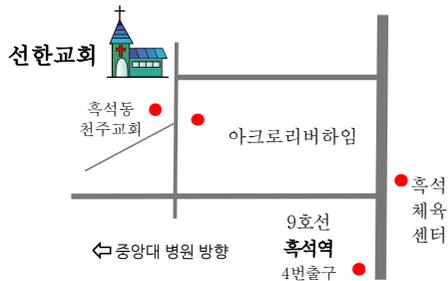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안나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조계승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편도선,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천사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의 방식 (빌 4:1-7)

-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 1:17)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10장 (통일찬송가 34장)	
교 독 문	교독문 2번 (시편 2편)	
찬 양 과 경 배	86장 (통일찬송가 86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장 9~20절	사 41:13
설 교	첫 번째 환상: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임춘배 목사)	Way Maker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알토 파트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다 함께
성 경 봉 독	창세기 4장 1~15절
설 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임춘배 목사)
찬 양	284장(통일찬송가 206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57~72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은 사무처리회로 인해 김밥이 제공됩니다.
 - 4) 주차 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사 무 처 리 회** 오늘 2부 예배 후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 수 련 회** 운영위원회 수련회가 25일(토) 오전 11시에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 청 년 부 겨 울 수 련 회**
 - * 주제: 'Way Maker' (사 41:13)
 - * 일시: 오늘 오후 1시~7시
 - * 내용: 성경적 진로 찾기, 크리스천 직업관
 - * 강사: 윤성화 대표(멘토링 연구소)
 - * 장소: 선한교회 지하 2층 청년부실
- 헌 신 예 배** 다음 주일(26일) 오후 예배는 제직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부 서 별 사 역 조 정** 2월 2일(주일) 2부 예배 후 사역조정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부 금 영 수 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주인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되도록.

찬송 :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통351)

본문 :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신앙이 부족하고 중간중간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걸어갔지만 그 여정 속에서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애굽왕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비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명령을 바라보며 그 명령만큼은 지키는 삶을 산 것입니다. 75세에 가족과 함께 하란을 떠난 아브람은 사병만 318명에, 가축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야 여정 속에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때론 시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받고 타락하는 성도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축복 속에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부딪치자 아브람이 서로 떨어져서 이 여정을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거리를 두고 가자고 한 말인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 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싫었고 눈을 들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맘에 들었던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롯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적이며 이 땅에서의 축복이었고 결국 그가 좇는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세상의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이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결론이 포함된 것입니다. 즉 종말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종말은 생각도 못 하며 신앙생활 역시 세속화되고, 성공과 축복을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롯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하시기 전이므로.” 이미 종말이 예견된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일 수 있으며 신앙을 가진 우리가 추구하는 곳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도 눈이 있었고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명령만큼은 놓치지 않고 걸어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고 최초의 십일조와 함께 예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멸하시기 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 맡겨 주신 교회를 세우며 영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 목 첫 번째 환상: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계 1:9~20)

서 론 요한은 밧모섬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 본 론
-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 계시받은 장소: 밧모섬(9절)/계시받은 날: ‘주의 날’(10절)
 - 계시받은 말씀: ①‘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9절) ②‘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11절)
 - 계시주신 분의 모습(12~16절): ①일곱 금 촛대 사이 ②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③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④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⑤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음
 -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7, 18절)
 - ‘네가 본 것은 내 오른 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20절)

2. 교훈

- 요한이 계시받은 장소와 계시받은 날은?
-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결 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안혜진 권사	박대수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주 방 봉 사		마리아회

매일 Q.T.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짜 : 1월 20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본문	요한복음 6:22~40		
말씀요약	우리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는다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일 6:22~29 먹고 배부른 일로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나요? 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나요?		
목상질문 2	생명의 떡 6:30~40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소망하기에 내가 내려놓을 육신의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6장 26~27절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썩을 양식'이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필요, 자기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따름입니다. 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삶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17:3)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제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 알고 온전히 믿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해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배부름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찬양과 기도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새 228),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목상 나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영생을 누립니다.
이야기 속으로	심한 갈증으로 허덕일 때 우리는 청량음료나 이온음료보다 물을 찾게 됩니다. 인공적인 음료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물맛을 따라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인공 제품 역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지닌 과일의 달콤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공 제품은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만물이 가장 맛있고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르른 산을 많이 보는 방법도 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가면 바로 치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제품도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주는 놀라운 회복력과 생명력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자연 자체를 섬기면 우상이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이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로운 회복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말씀나누기	요한복음 6:41~59
목상포인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48),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9:5). "나는 (양의) 문이다"(요 10:7, 9). "나는 선한 목자다"(요 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나는 참포도나무다"(요 15:1). 그중 '생명의 떡'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떡'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출 16장; 민 11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6:1~15)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신적 권능의 예수님(6:16~21)에 관한 기사를 앞에 배치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6:22~59)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요 13:26),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떡을 먹이시면서(요 21장) '생명의 떡'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관찰과목상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함을 내 삶과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과 긍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	날짜 : 1월 24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본문	요한복음 7:14~24		
말씀요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고친 자신에게 왜 노여워하는지 반문하십니다. 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7:14~19 예수님의 교훈이 진실하고 참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나의 일(사역, 가르침)에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나요?		
목상질문 2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 7:20~24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요?		
한절목상	요한복음 7장 17절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에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고 그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하소서. 제 어리석은 기준을 내세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매일 Q.T.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날짜 : 1월 21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본문	요한복음 6:41~59		
말씀요약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아는데 예수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며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분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자 6:41~46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아는 영적 시각이 내게 왜 필요한가요?		
목상질문 2	참된 양식, 참된 음료 6:47~59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나요?		
한절목상	요한복음 6장 45절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듣고 배운 사람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전과 전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복과 형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관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요.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었으니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제 삶의 중심에 새기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소서.		

매일 Q.T.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	날짜 : 1월 22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본문	요한복음 6:60~71		
말씀요약	예수님은 말씀이 어려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제자가 떠나가지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열둘을 택하셨으나 그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 6:60~66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깨달음과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6:67~71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너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답할까요?		
한절목상	요한복음 6장 67~68절 참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열두 제자’는 가짜 제자와 구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가짜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참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해서 넘어져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참제자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결국 참제자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 기대와 만족을 앞세우다가 주님 말씀을 걸림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	날짜 : 1월 23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요한복음 7:1~13		
말씀요약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도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목상질문 1	형제들의 불신앙 7:1~7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내가 사람들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때를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님 7:8~13 예수님이 명절에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조용히 진행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요한복음 7장 6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채우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채워 가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사람들의 요구와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맞추어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오롯이 집중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소서. 제 삶에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시간을 분별하게 하소서.		